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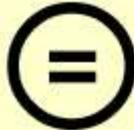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확인요구모달리티의 정보성

-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 를 중심으로 -



2008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 知 榮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확인요구모달리티의 정보성

-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 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孫 東 周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 知 榮

李知榮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8月



主審 崔建植 (인)

委員 朴榮淑 (인)

委員 孫東周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2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방법.....	9
II. 모달리티의 구조.....	12
1. 모달리티의 범주와 특징.....	12
가. 판단주체의 주관성.....	12
(1) 인간 내면의 감정과 사고.....	12
(2) 피해수동표현.....	13
(3) 시점의 이동현상.....	14
나. 표현주체의 주관적 사항.....	15
(1) 표현자와 청자의 문체.....	15
(2) 담화의 신규요소 도입문제(田窪論).....	16
2. 문(文) 구조에 있어서의 모달리티.....	17
가. 주관적인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요소.....	17
나. 객관적으로 파악된 사항을 나타내는 요소.....	18
3. 확인요구모달리티.....	19
가. 확인요구의 정의.....	19
나. 확인요구의 구성과 특징.....	20
III. 「じゃないか」「だろう」「ね」의 비교·분석.....	23
1. 「じゃないか」「だろう」「ね」의 의미 분석.....	23

가. 「じゃないか」	23
나. 「だろう」	27
다. 「ね」	32
2. 정보적 관계	38
가. 청자 의존형	38
(1) 정보적 공기(共起)	38
(2) 호환성	42
나. 청자 유도형	43
(1) 정보적 공기(共起)	43
(2) 호환성	46
다. 정보의 확신성	51
(1) 「じゃないか」와 「ね」	51
(2) 「だろう」와 「ね」	52
(3) 「じゃないか」와 「だろう」	53
IV. 결론	55
참고문헌	58

〈표 및 그림 차례〉

[표1] <요구표현의 구성요소>	20
[표2] <청자와 화자간의 정보적 관계>	56
[그림1] <「だろう」「ね」「じゃないか」의 청자의 정보적 인식관계>	50

THE INFORMATION OF CONFIRMATION DEMAND MODALITY

– Focus on “ZYANAIIKA” “DAROU” “NE” –

Ji Young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differences of the information domains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focused on the basic forms of confirmation demand modality “ZYANAIIKA” “DAROU” and “NE” , and to analyze them to know the confirmation of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has been referred the scripts of Japanese movies, dramas and animations.

The confirmation demand modality means that there exists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in the communication and the speaker expects and demands the listener’s judgment to th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This modality commonly uses rising intonation, which shows an interrogation to the listener.

There are three forms of the confirmation demand modality, “ZYANAIIKA” , “DAROU” and “NE” . “ZYANAIIKA” involves the meaning of the speaker’s confirmation of information and this is the confirmation demand modality which leads the listener to agree that the speaker’s information is correct.

“DAROU” leads the listener to speak when the speaker recognizes it while this modality is likely to depend on the listener for information when the speaker doesn’t recognize it. In the case of using “NE” , the speaker has a nuance that the speaker identifies his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confidence to the listener’s information because the speaker has lack of confidence to his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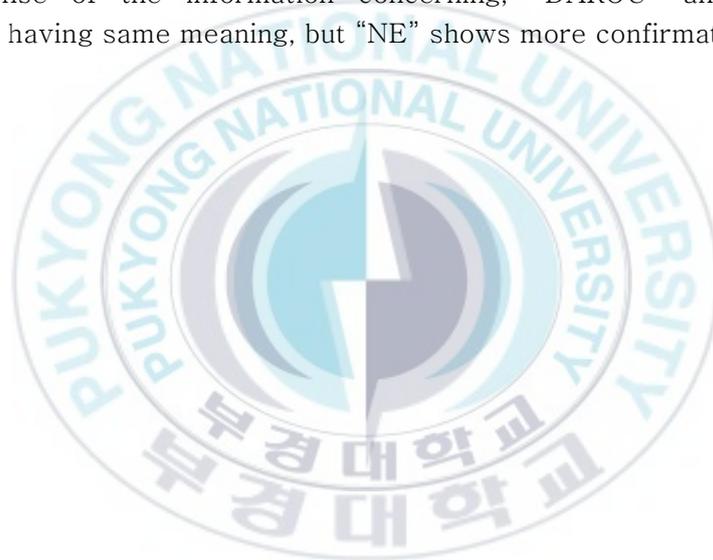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listener’s informational dependence, three forms of confirmation demand modality can be expressed like this: “ZYANAIIKA” < “DAROU” \leq “NE” . In this expression, “DAROU”, which is the listener dependent form, means that there is no information to the speaker.

When “DAROU” is the listener leading form, it can be expressed like this:
“DAROU” < “ZYANAIIKA”

This expression means that “DAROU” shares the listener’s information with the speaker while “ZANAIIKA” leads the listener’s information to confirm the speaker’s information. On this occasion, “NE” cannot be used similarly, for “NE” is not the kind of modality to lead the listener’s information.

When “DAROU” is the listener dependent form, these three forms of modality, according to the confirmation of the speaker’s information, can be expressed like this: “DAROU” \leq “NE” < “ZYANAIIKA” .

In the sense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DAROU” and “NE” are considered having same meaning, but “NE” shows more confirmation.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일본어에서는 의문표현을 나타낼 때, 의문사(どこ、いつ、いくら、何など) 또는 문장 끝에 의문형태를 나타내는 「か」를 쓰지 않고, 상승인토네이션을 사용하여 의문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확인요구모달리티라고 한다. 보통 의문문은 화자가 현장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없고, 청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지만, 확인요구모달리티는 대화상에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고, 화자가 그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의 인식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상태를 말한다. 확인요구표현은 대체적으로 상승인토네이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의 형태나 의문표현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확인요구모달리티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じゃないか」「だろう」「ね」가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90년대 초반부터 鄭(1992), 三宅(1996), 宮崎(1996) · (2005), 蓮沼(2006) 등에 의하여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현재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확인요구모달리티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에는 정보영역이라는 것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상에서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그 정보에 대한 화자와 청자간의 인식이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성에 관하여 화자 영역과 청자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가 되고 있으며, 확인요구모달리티의 기본 표현인 「じゃないか」「だろう」「ね」와 또 이

표현들의 파생어(「だろうね」「よね」 등)들로 확대되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보영역으로 다루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요구모달리티「じゃないか」「だろう」「ね」가 화자와 청자간의 정보 영역에 관하여 알아보고, 정보의 확신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宮崎(1996)에서 정보영역에 관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확신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인요구형태의 기본적인 형태인「じゃないか」「だろう」「ね」이 세 가지의 확인요구모달리티를 중심으로 화자와 청자간의 정보영역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확신성에 대하여 밝혀나가고자 한다

2. 선행연구

金水(1992)에서는「だろう」의 문말(文末)형식과 관련하여「よ」와「ね」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だろう」에 관하여 5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だろう」가 직접경험적 영역인지 아닌지에 의해「だろう 1」과「だろう 2」로 나누고 있다.

- ◆聞き手の眼前の事物に気付かせる。
- ◆話し手と聞き手の共有体験で、聞き手が忘れていたかも知れないことを思い出させる。
- ◆話し手以前聞き手に教えたことを思い出させる。
- ◆聞き手が以前話し手に言ったことを確認させる。
- ◆話し手を聞き手の共有知識から帰結される事柄を確認させる。

「だろー 1」 -話し手の直接経験的領域にない知識を話し手が推論によって導出したことを表わす標識として機能する。

「だろー 2」 -情報伝達にとって関与的であり、知識ベースには存在するはずであると推論されるのに、聞き手が忘れてる/気付いていない知識を思い出される/気付かせるために用いる。

「よ」는 간접 경험적 영역에 의한 전달언어이고, 「ね」는 복수영역에 존재하는 정보 동일성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だろー」는 추론에 의한 도출을 전제로 않고, 일방적으로 쓰이고, 사용의 상황으로써 동일성 성립기대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다.

鄭(1992)는 응답 방법과 인칭제한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구표현은 문말(文末)에 위치하고, 상대방의 언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대체적으로 생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ね」를 확인요구와 동의요구 두 가지로 나누고, 「だろー」를 확인요구와 인식요구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확인요구 「ね」는 정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뉘앙스이며, 응답방법과 「が」격 인칭제한이 있다. 응답에는 'Yes-No'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문문 「～か」와 같지만, 「～か」의 경우에는 화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전혀 가지지 않을 때 사용한다. 반면, 「ね」는 청자의 정보보다는 적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한다. 확인요구 「ね」에 관하여 단순확인(念押し)、교류확인(念押し)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단순확인 -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제 3 자 또는 대화의 현장 상황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화자는 그 자리에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청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

재확인(念押し) - 청자와의 선행 발화로부터 화자가 잊어버린 것 또는 할말을 빠뜨렸다는 기분 때문에 청자에게 확인하는 뉘앙스이다. 「ほんとうに」「まちがいなく」 등과 같은 부사와 공기(共起)하기 쉬운 경향

교류확인 - 청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교류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청자의 영역

확인요구의 「だろう」는 청자가 정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예상하는 화자의 추측을 확인하는 뉘앙스이다. 「だろう」를 확인요구와 인식요구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인식요구에서는 현장지식, 과거지식, 일반 지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だろう」의 확인요구와 인식요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확인요구의 「だろう」- 응답방법과 「が」격 인칭제한으로 3 인칭 제한이 발생하며, 추측부사(きっと、おそらく、さぞ、たぶん등)와 생기(生起)

인식요구의 「だろう」- 1□2 인칭제한

「ほら」와 공기(共起)

「じゃないか」와 호환가능

현상 사진에서는 「だろう」가 나타나기 어려움

「ね」와 「だろう」의 확인요구로서의 차이에 대하여 「ね」는 「伝達機能しか有していない」로, 「だろう」는 「伝達だけではなく、言表事態を想像的にとらえる判断のモダリティの機能を有している」라고 정의하고 있다.

鄭(1994)는 정보전달□기능론적인 관점에서 성질을 달리하는 확인요구와 인식요구 두 가지로 나누어 각 용법 별로 정리하고 있다.

응답방법과 「が」 격 인칭제한, 「ほら」와 생기(生起)제한, 「ひょっとして・もしかして」 등의 불확정성의미를 가진 부사와의 생기(生起)관계를 기준으로 확인요구와 인식요구를 비교해 가고 있다.

「じゃないか」는 P 와 -P 가 대립한 상황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인식을 재촉하기도 한다. 반면, 「だろ」는 그 사항에 대해서 화자의 추측적 정보를 확인 하기도 하고, 청자의 인식상태가 불확실할 때에는 그 인식과 회상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三宅(1996)에서는 기술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だろ/ではないかⅠ類」와 「ではないかⅡ類/ね」의 형식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だろ/ではないか」의 의미□용법을 상세하게 ‘확인요구’, ‘약한 확인요구’, ‘동의 확인요구’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확인요구를 ‘명제확인요구’와 ‘지식확인요구’로 분류하고 있다.

「だろ」는 명제확인요구와 지식확인요구, 「ではないかⅠ類」는 지식확인요구와 약한 확인요구 「ではないかⅡ類」는 명제확인요구에 각각 속하고, 「ね」는 명제확인요구, 약한 확인요구, 동의요구에 속한다고 한다.

명제확인요구와 지식확인요구는 「だろ」로 바꿔 쓸 수 있고, 약한 확인요구는 「ね」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식확인요구를 ‘잠재적 공유지식¹⁾’와 ‘인식동일화 요구²⁾’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며, 잠재적 공유지식의 활성화에서는 「ほら」와 공기 할 수 있다.

¹⁾ 청자의 지식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가 잠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²⁾ 청자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약한 확인요구는 화자에게 있어서 확실한 진실명제를 청자도 진실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확인요구와의 차이점은 화자에게는 어떤 불확실한 것도 없고,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확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확인요구와 비교하면 확인요구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宮崎(2005)는 「だろう」를 추측과 확인요구로 나누고, 「ね」「のではないか」「ではないか」를 확인대상을 중심으로 청자의존형과 청자 유도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聞き手依存型 — 「確かな情報を有していると見込まれる聞き手の応答に依存してその情報の確定化を図ること」

聞き手誘導型 — 「話し手自身の認識が確かな状況での確認要求は、聞き手の認識を誘導して共有情報の確立を図ること」

다음은 宮崎(2005)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話し手の認識が対象	聞き手の認識が対象
聞き手依存型	のではないか、ね	だろう
聞き手誘導型	ではないか	だろう

聞き手依存型에서 「のではないか」는 화자의 인식이 불확실하고 청자의 인식은 불확실한지 확실한지에 관계없이 질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청자의 인식 방법에 있어서 그 기능이 확인요구와 의견요구로 자동적으로 나뉘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だろう」의 확인요구용법에서는 추측 형식으로서의 기능은 잃어 버리고 화자의 인식 불확실성의 표현으로 청자의 인식으로

서 그 사항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새로운 기능을 얻고 있다. 화자의 추측 판단을 제시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에 추측 확인과 명제확인 요구에서 「のではないか」와 바꿔 쓸 수 있고, 「さては」「もしかして」와 공기(共起)한다.

「ね」는 화자의 인식방법을 청자에게 제시하고 그러한 인식을 해도 좋은가라고 확인을 구하는 형식이다. 청자의 평가에 관한 확인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청자의 인식으로 청자의 평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聞き手誘導型에서는 청자의 시각을 문제로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라는 것에서 「ではないか」와 「だろう」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ではないか」는 화자가 발화현장에서의 인식성립을 청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명확하게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에, 화자가 자신에 대하여 「外からみて元気そうに見える」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ではないか」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だろう」는 청자로부터 화자의 외관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청자의 인식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인식의 동일성의 확보라는 목적의 공통성을 가질 때 「ではないか」와 「だろう」가 호환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청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용법으로 「ね」와 「ではないか」가 사용할 수 있다. 외관관찰의 「そうだ」와 전문의 「そうだ」와의 공기(共起)관계, 청자의 평가에 대한 확인 용법에 관해서도 「だろう」가 아니라 「ではないか」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蓮沼(2006)는 정보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정보영역이라는 관점에서 「じゃないか」「だろう」「よね」를 분석하고 共通認識の喚起、認識形成の要請、推量確認、認識生成のアピール、相互了解の形成確認로 분류하고 있다. 「じゃないか」의 고유 용법을 認識生成のアピール, 「だろう」의 고유 용법을 推量確認, 「よね」의 고유 용법을 相互了解の形成確認로 정의하고,

共通認識の喚起에서는 「じゃないか」「だろう」「よね」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 용법에서는 세 가지 모두 청자의 지식의 공유와 인식 형성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가 그 대상을 생각해내려고 하고, 화자의 인식과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청자의 인식을 재촉하고, 그 성립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認識形成の要請에서 공유 사용이 가능한 「じゃないか」와 「だろう」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인식 할 수 없는 청자를 비난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よね」는 그러한 비난의 뉘앙스는 없고, 판단의 공유를 확인하고 있는 즉, 相互了解の形成確認이라는 것이다.

認識形成の要請에서는 「じゃないか」와 「だろう」가 공유하며, 차이점은 미묘하지만, 「じゃないか」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말한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이고, 「だろう」는 상대방이 갖춘 인식능력을 구사하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문(文)이 당연한 판단과 일반적 경향성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할 경우에는 「じゃないか」와 「だろう」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자 의존형인 「だろう」「ね」는 추측부사와 생기(生起)하고, 가격/3 인칭 제한이 있으며, 「のではないか」와 「だろう」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자 유도형 「じゃないか」「だろう」에서는 ほら와 공기(共起)하고, 서로 호환가능하며, 1,2 인칭 제한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정보확신성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각 선행연구에서는 표현성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표현들을 宮崎(2005)가 제시한 청자 의존형과 청자 유도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방법

종래의 확인요구모달리티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넓은 범위에서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논문의 주제인 확인요구모달리티에 관하여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모달리티에 관한 이론은 益岡의 모달리티 이론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鄭(1992), 三宅(1996), 宮崎(1996) · (2005), 蓮沼(2006)의 연구를 기본 토대로 확인요구모달리티 대표적인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가 어떠한 정보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형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영역에 관하여 宮崎(2005)의 ‘청자 유도형과 청자 의존형’의 관점에서 수집한 예문들을 분석하여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의 정보적공기와 호환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기본 토대로 하여 분석해 나가도록 하며, 대화문에서 보여지는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를 사용하는 발화의 정보영역을 중심으로 정보성과 관련하여 화자의 영역과 청자의 영역에서 가지는 확신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나가기로 한다. 이 세 형식의 정보영역에 관하여 宮崎(2005)이 제시한 청자 의존형과 청자 유도형으로 나누어서 밝혀나가고, 예문에서 나타나는 정보적인 의존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의 회화상에서 쓰여지는 형태에 관해서는 「じゃないか」와 「だろう」의 축약형인 「じゃねか」 「じゃねえか」 「だろ」 「でしょ」를 포함하고 「じゃないか」와 「だろう」의 정중체인 「ではないか」 「ではないですか」 「でしょう」를 포함하여 예문을 발췌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에 사용된 예문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집한 일본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에서 발췌하였다.

MiyazakiHayao<<http://www.jcafe.pe.kr/miyazakihayao/hayao2.html#3>>
<http://cafe.daum.net/kitobo>

◆드라마

1. 롱그바케이션 (1996) (1회~11회)
2. 뷰티풀라이프 (2000) (1회~11회)
3. 히어로 (2001) (1회~11회)
4. 派遣の品格 (2007) (1회~11회)
5. ノダメカンタービレ (2006) (1회~11회)

◆영화

1. シャル・ウィ・ダンス (1996)
2. ラブレター (1995)
3. 四月の物語 (1998)
4. 踊る大捜査線 (1998)
5.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2004)

◆애니메이션

1. 火垂るの墓 (1988)
2. 海が聞こえる (1993)
3. 天空の城ラピュタ (1986)
4. 風の谷のナウシカ (1984)
5. とんりのトトロ (1988)
6. おもひでぼろぼろ (1991)

7. 紅の豚 (1992)
8. 耳をすませば (1995)
9. もののけ姫 (1997)
10. 千と千尋の神隠し (2001)
11. ハウルの動く城 (2004)
 時をかける少女 (2006)

위의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바탕으로 「じゃないか」「だろう」「ね」의 예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예문마다 시나리오의 제목을 다 붙이고 각각의 예문에 나온 「じゃないか」「だろう」「ね」의 형태 밑에는 ‘—’로 표시해 두었다.



II. 모달리티의 구조

1. 모달리티의 범주와 특징

모달리티의 기본이 되는 것은 「主観性の言語化されたものである。」라는 견해이다. 즉, 객관적으로 파악된 사항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마음에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는 주체에 관계된 사항을 언어화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益岡(1991)는 모달리티를 「判断し、表現する主体に直接関わる事柄を表わす形式」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달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언어의 보편적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어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다.³ 이것에 대하여 판단주체의 주관성 사항과 표현주체의 주관적인 사항으로 나눠서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가. 판단주체의 주관성

(1) 인간 내면의 감정과 사고

감정과 사고의 표현에 있어서 판단주체의 주관성에 속하는 사항을 객관적인 사항과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일본어에서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과 사고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사항으로서 표현되고, 평서문에서는 1인칭 내면만 나타낼 수 있다.

³ 일본어는 판단 표현주체의 주관적 측면이 고도로 문법화된 언어이고, 모달리티의 연구에 의해서 다른 언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益岡(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るしお出版 pp33~36

- (1) (私は)休眠がほしい。
- (2)*弟は休眠がほしい。
- (3) (私は)これでよいと思う。
- (4)*妻はこれでよいと思う。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사고는 판단주체의 내면에 있는 것과는 구별되고, 다름의 예처럼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사태로써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다.

- (5) 弟は休眠をほしがっている。
- (6) 妻はこれでよいと思っている。

(2) 피해수동표현

일본어는 그 사태에 대한 판단주체관계를 명시하는 경향이 강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주체에 있어서 그 사실의 이해와 표현이 그 한 예이다. 피해수동표현에 의한 「~もらう」「~くれる」 등의 형식에서도 각각 나타난다.

- (7) 私は満員電車の中で足を踏まれた。
- (8) 僕らは先に点を取られた。
- (9) 私は1先生に絵をほめてもらった。
- (10) 太郎は仕事を手伝ってくれた。

이 표현들은 다음과 같이 객관성이 강한 표현보다도 일반적으로 원하는 표현이다.

- (11) 先生は私の絵をほめた。

또는 판단주체를 향한 동작도 「~くる」과 같이 특별 형식으로 표현되

는 경향이 강하다.

(12) 郷里から野菜を送ってきた。

(13) 男が話しかけてきた。

이 경우, 「~くる」 과 같은 형식은 쓰이지 않고 객관적인 표현은 보통 부자연스럽다.

(14) ? 郷里から私に野菜を送った。

(15) ? 男が私に話しかけた。

말할 것도 없이 판단주체가 그 사태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くる」 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3) 시점의 이동 현상

판단주체의 주관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써 시점 이동의 현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다. 시점의 이동이라는 것은 사물 등의 문체에 있어서 표현자가 특정의 인물로부터 사태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문체에서 표현자는 자신의 시점에서 사태를 바라보지만, 사물 등에서는 어떤 인물로 시점을 이동하고, 그 인물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표현자는 그 인물의 주관성에 관한 상황을 마치 자기 자신의 주관성에 관한 상황처럼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 문체에는 허용하지 않는 (16)이나 (17)과 같은 표현도 시점의 이동이 가능한 소설 문체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16) 太郎は休眠がほしかった。

(17) 男は花子に話しかけてきた。

다음과 같은 표현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시점의 이동을 허락하는 문체에 있는 편이 안정감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18) 太郎は満員電車の中で足を踏まれた。

(19) 花子は先生に頭をなでてもらった。

나. 표현주체의 주관적인 사항

표현주체의 주관적 측면으로써 지식·정보 전달을 둘러싸고 표현자(화자)와 청자에 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1) 표현자와 청자의 문제

화자가 어떤 지식·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할 때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 지식·정보가 화자의 <繩張り>에 속하는 것인지 속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에 관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전달 할 경우, 화자는 청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다. 청자가 모른다고 생각될 경우는, 화자의 영역에 속한 것을 나타내는 (20) 과 같은 표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와, 속해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21) 과 같은 표현을 각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 こちらは暖かいです。

(21)今日は暖かいですね。

마찬가지로 神戸의 땅값이 상승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땅 주인이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22)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2)神戸の地価は、最近どんどん上がっているよ。

이것에 대하여, 같은 보도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이 원래 땅 주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보통 화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과 같은 표현 대신 (23)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 쉽다.

(23)神戸の地価は、最近どんどん上がっているようだね。

(2) 담화의 신규 요소 도입문제(田窪論)

일본어에서는 어떤 요소를 담화에 도입할 경우, 그 요소가 화자 또는 청자가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언어형식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화자·청자가 동시에 지시대상을 같은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지시대상을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という」나 「って」처럼 인용형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4)甲：田中さんに頼っておきました。

乙：田中さんって誰ですか。

甲：田中さんというのは私の英語の先生です。

甲이 도입한 「田中さん」이 乙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요소인 경우, 乙은 「田中さんって誰ですか。」과 같이 고유명사를 있는 그대로의 형식으로 쓸 수 없다. 또, 甲도 乙이 지시대상을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田中さんは私の先生です。」과 같은 표현은 할 수 없을 것이다.

2. 문(文) 구조에 있어서의 모달리티

두 개의 큰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어의 기본적인 ‘객관적으로 파악된 사항을 나타내는 요소’와 ‘주관적인 판단·표현태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가. 주관적인 판단·표현태도를 나타내는 요소

표현자의 표현 시(時)에서의 판단·표현태도를 나타내는 요소라고 규정한다. 주관적 표현 전용의 형식의 대표적인 「ねえ」, 「よ」, 「だろう」는 보통 표현자의 표현 시(時)의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낸다.

(25) ねえ、どうやら手紙が着かなかったらしいよ。

(26) 何も要らないだらう。

이것들의 형식은 보통 표현자 자신의 판단·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의 의문문에서는 「何も要らない」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だろう」는 의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7) 何も要らないだらう？

또, 「ねえ」 「よ」 「だろう」 등은 표현자 이외의 시점에서 판단·표현태도를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은 「だろう」가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될 수 없다.’ 고 하는 사실에서 보면 명백하다. 더욱이 이것 들

의 형식은 객관성이 높은 「～こと」 과 같은 표현 중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부적절하다.

(28)*手紙が着かなかったよことは十分あり得る。

(29)*何も要らないだろ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

나.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사항을 나타내는 요소

표현자의 판단·표현대도를 나타내는 형식 중에는 객관화를 허락하는 것도 존재한다. 즉, ‘표현자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용법□표현 시간 이외의 시점에서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법 「～こと」 과 같은 표현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법’ 등을 가진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らしい」 나 「ない」 가 그 예이다. 「らしい」 나 「ない」 는 의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0) 警察はそのことに気づいているらしいですか。→ そのことに気づいているらしい。

(31) 試験の結果もよくないですか。→ 試験の結果もよくない。

이것들의 형식은 또한, 과거의 시점에서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고, 「～こと」 등의 내부요소로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2) 花子はどこかに出かけるらしかった。

(33) 花子がどこかに出かけるらしいことは、そのときの様子でわかった。

3. 확인요구 모달리티

가. 확인요구의 정의

확인요구의 정의에 앞서서 ‘확인’ 과 ‘요구’ 라고 하는 단어에 관한 양국의 사전적 의미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어에서 ‘확인’ 이란 말은⁴ 「確かにそうだと認めること。また、はっきり確かめること」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自分の筆跡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라는 예가 덧붙여 있다. 한국어에서의 ‘확인’ 이라고 하는 단어는⁵ ‘확실히 알아봄’ 또는 ‘확실히 인정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다” 라는 예가 적혀 있다. 그리고 ‘요구’ 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어에서는 「必要である、当然であるとして強く求めること。」라고 정의되어 있고, 「賃上げを要求する」「要求に応じる」라는 예문을 들고 있다.

한국어에서의 ‘요구’ 라는 단어는 ‘달라고 청함’ 또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청하거나 구함’ 이라는 의미로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다’ 라는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알아본 ‘확인’ 과 ‘요구’ 의 양국의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확인’ 의 경우에 ‘확실히 인정한다’ 라는 의미적인 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구’ 라는 단어는 한국어 ‘요구’ 의 ‘청하거나 구하다’ 보다 강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인’ 에 대하여 宮崎(2000)는 「「確かめる」ことであり、「確かめる」とは「確かにする」ことだとすれば、「不確かなことを確かにする」」라고 하고, 三宅(1996)는 「話し手にとって何か不確実なことを、聞き手によって確実に

⁴ 岩波書店 (1998)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⁵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2004) 『동아새국어사전』 두산동아 제4판

してもらおうための「確認」라고 정의하고, 鄭(1992)는 「聞き手に情報を要求しているので、問い掛け文に連続しているもの」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인요구를 ‘대화상에서 어떤 정보에 대하여 화자도 어느 정도 인식 하면서, 그것을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나. 확인요구표현의 구성과 특징

확인요구표현에 앞서서 먼저 요구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확인요구표현의 출발은 요구표현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본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요구표현의 구성요소⁶

위의 표를 보면 확인요구표현은 질문적 표현 중에서도 긍정·부정요구표현 속하는 확인요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⁶ 草薙裕 外3名 『文法と意味Ⅱ』 朝倉日本語新講座4 朝倉書店 p41

三宅(1996)는 확인요구 표현을 ‘확인요구’, ‘약한 확인요구’, ‘동의요구’ 세 가지로 하위분류하고, 확인요구를 명제 확인요구와 지식 확인요구로 분류하고 있다. 仁田(1994)는 疑似疑問⁷이라고 표현하여 확인요구 표현의 범주 속에 넣어서 표현하고 있다. 宮崎(2005)는 확인요구를 크게 ‘청자 의존형’과 ‘청자 유도형’으로 분류하고 ‘청자 의존형’ 안에 ‘화자의 인식’과 ‘청자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인식계확인요구’와 ‘당위계확인요구’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宮崎(2005)에서 제시한 청자 의존형과 청자 유도형을 기본으로 하여 분류·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安達(1991)는 확인요구표현이 가지는 특징을 두 가지의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 ◆명제내용 불확정성 - 화자에게는 명제내용의 진위판단, 혹은 그 명제를 구성하는 정보의 일부가 결여되어 있다.
- ◆청자에의 질문성 - 화자는 그것을 청자에게 물음으로써 만족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것에 관하여 安達(1991)는 확인요구의 의문표현에는 확정성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그 결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즉, 확인요구의 의문표현의 「だろ」에는 의문사의문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じゃないか」도 포함된다.

⁷ <問い掛け>의 형태를 취하여, ‘상대에게 상대방부터 정보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린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부터의 확인과 추인(追認),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p152

(34) 誰が来る {*だろう/*じゃないか}

명제 안에 의문사를 포함하여 그 명제에는 화자의 판단이 성립하지 않고 불확정적이 된다. 의문사의문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요구의 의문 표현의 명제내용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식적인 무드의 형식과의 공기(共起)가 발생할 수 있다.

전형적인 질문문은 「かもしれない」와 같은 인식적 무드(mood) 형식과 공기(共起)할 수 없지만, 확인요구의 형식은 공기(共起)할 수 있다.

(35) ??雨が降るかもしれませんか?

(36) 雨が降るかもしれない {だろう/じゃないか} ?

Ⅲ 「じゃないか」「だろう」「ね」

1. 「じゃないか」「だろう」「ね」 의미분석

각각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고 의미와 관련하여 이 표현들이 가지는 정보성과 확신성에 대하여 비교하며 나아가고자 한다.

가. 「じゃないか」

먼저, 확인요구가 아닌 「じゃないか」 자체만 놓고 보면 문(文) 형식과 표현의 의미와 결합⁸하지만, 거의 일정한 형태로 「じゃないか」라는 형식을 가진 문(文)으로 쓰이고 있다. 「じゃないか」의 확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이 인식한 경험을 공유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아래의 (1)과 (2)의 예문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같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1) 「考えてくれる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踊る大捜査線 >

(2) ボムじい:ましてその石を人の手が作り出したもの。

それを気になってな。

パズー :そんなことないよ。その石はもう二度もシータを助けてくれ

⁸ 「じゃない」에 종조사「か」가 더해진 것
御園生保子(2000) 「文末に現れるジャナイの用法と韻律の分析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日本語意味と文法の風景—国広哲弥教授古稀記念論文集』 ひつじ研究叢書 p348

たじゃないか。すごいで、ラピュタは本当にあるんだ!!

〈天空の城ラピュタ〉

이런 「じゃないか」를 田野村(1988)⁹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제 1 류 - 발견한 사태를 놀람 등의 감정을 넣어 표현하거나, 어떤 사태를 인식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며, 앞 표현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의 예상 밖이라면 놀람과 플러스 평가이고 낙담과 기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평가 된다. 체언과 용언에 붙는다.

(3) 高坂先生 : あ〜ん... 失敗しちゃったじゃないか! 〈耳をすませば〉

제 2 류 - 추정을 표현한다. 화자는 앞의 표현내용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체언에만 붙는다.

(4) 「坂下始くん、いますね?」

「うちの子が何か?」

「お友達も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踊る大捜査線〉

(5) 폴코 : なんだよ、島めぐりの観光艇じゃねか。

娘たち : キャーツ。ブタよ。ブタさんよ!!

〈紅の豚〉

⁹ 安達(1991)・三宅(1994)・宮崎 (1996) 등에서 재인용

제 3 류 - 끝부분의 「ない」가 부정사 본래 성격을 발휘한다. 「じゃないか」라는 형태의 보통 부정표현에 단순히 종조사 「か」가 접속한 것이다.

(6) 聖司 : おじいちゃんに聞いてここ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だ...

<耳をすませば>

(7) 雨 「ん? 何これ」

何氣なくあけた バックの 中に 白い 包みが。

く 「おまえのじゃないの?」

雨 「知らない間に入ってた」

<ヒーロー>

田野村은 제 1 류와 제 2 류를 확인요구형태라고 보고 있으며, 제 1 류는 체언과 용언에 접속하고 제 2 류는 체언에만 접속하고 이때에는 「の」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체언에만 붙는다.

(8) 「あの子危ないんじゃないの?」

「森君はまだ慣れてないだけだよ。大丈夫。大前さんがフォローをしてくれれば、そのうち。」

<派遣の品格>

(9) 「だったらそのおまけを一人前にするのがあなたの仕事じゃないんか!?」

「はい・・・しかし、」

「とにかく私は、今月いっぱいいでなくなります。以上!」

<派遣の品格>

제 1 류는 화자의 평가, 판단, 형편 등을 청자에게 떠맡기는 뉘앙스이다. 이때는 청자의 승인이 불필요하고 서술에 근접하지만, 청자의 승인이 필요 없는 대신 그 정보에 관하여 검정이 필요하다. 청자는 화자의 정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검정결과와 맞추어 보려는 것이다.

(10) 「上、行ったら、現場の刑事のこと、考えてくれる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まだこの人のこと信じてるの?」

<踊る大捜査線>

(11) おやじ: どうだい。

ポルコ: こりゃフォルゴレじゃねか。

おやじ: 出所は聞くな。

<紅の豚>

제 2 류는 그 정보에 관하여 화자와 청자가 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예상하고, 화자와 청자가 공유된 정보영역 안에서의 정보기입(情報記入)은 청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승인은 응답보다는 맞장구(相づち)나 긍정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암묵의 이해로 나타내기도 한다.

예문 (10)과 (11)는 화자가 한 말에 대하여 맞장구나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예문 (12)는 청자가 답은 없지만 청자의 말에 소리 없이 동의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12) 雨 「結構いいコンビじゃないですか。」

く 「いい人だよ、末次さん。なんで奥さん逃げちゃったんだろう。」

<ヒーロー>

(13) 「あ！春子先輩なら、自動車整備士の資格なんて持ってるんじゃないか?」

「ああ、そうさそうさ。エレベーターの資格持ってるぐらいだから、」

<派遣の品格>

(14) 「好きな男の為だったら、エネルギーも出る!？」

「はい!!」

「バカじゃないの。」

「・・・」

<派遣の品格>

「じゃないか」는 독백과 대화에서 다 사용되지만 확인요구를 나타낼 때는 독백은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때에 따라 독백에 쓰이기도 하는데, 대화의 경우에는 청자가 존재하고 화자의 영역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예문(15)는 「じゃないか」가 독백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16)은 확인요구형태로 청자에게 멋진 투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다.

(15) <「これね、集中する時いいですよ、はい、してみて?」

部「くれんの...?」

<「見本ですから」

ふって吹く部長! きゃ-!! くりゆたんのみみあかじゃないの! 煎じて飲ま
なきゃ (笑)! でも、すごく性能のいい耳栓らしく。

<「その眼鏡すよ」

<ヒーロー>

(16) 「いや、きれいなスモークボールじゃないですか。」

「ああそう? それじゃ、ね、それ君にあげるわ。」

<踊る大捜査線>

나. 「だろう」

추측이라는 것은 언어표현의 상태를 둘러싼 모달리티이며, 판단 수준의 의미인 것에 반해, 확인요구는 청자기준으로서의 모달리티이고, 전달 수준의 의미이다. 추측의 「だろう」가 독백 또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에 반해, 확인요구의 「だろう」는 대화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 같은 대화에 나타난 경우에도 추측의 「だろう」는 「か」나 의문사 등의 의문요소가 없이 의문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 반해, 확인요구의 「だろう」는 의문요소 없이 인토네이션만으로도 질문문 (問い

掛けの文)¹⁰ 의 기능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

(17), (18)은 상승인터네이션을 취하여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다.

- (17) 納得する公平は、後ろで笑ってる警官に、僕の事務官なんですけど、すごいキレるでしょ? と 紹介。例のヤツと、なぞのブツを渡し、雨宮が持ってきた地圖もたくします。 <派遣の品格>
- (18) 千昭：冗談だろ?... ったく。あのさ俺も眞琴に聞いたことあんだけど
紺野眞琴：何? <時をかける少女>

다음은 추측의 「だろう」와 확인요구 「だろ」의 기능에 관한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 추측의 「だろ」 -
- ◆의문사 없이 의문문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 ◆「たぶん」이라고 하는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나 종조사「なあ」등과 함께 쓰인다.
 - ◆문중(文中)이나 문말(文末)에 다 쓸 수 있다.
 - ◆독백이나 대화 또는 회화나 문장 다 가능하다.
 - ◆하강인토네이션만 갖는다.

¹⁰ 「問い掛け」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X学校へ行く/ご飯を食べた/大きい/元気(な)/課長(な)/誰が来る/何をしている+か/のか」 등이 있다고 하면, 청자나 제 3자의 「X」에 대하여 화자가 100%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포기’를 하지만,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청자로부터 「イエス: X+ (だ)」 또는 「ノー: X+ (では)ない」의 대답을 기대하고, 의문사인 경우는 그 부분의 해답을 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에 대하여 ‘확인’이라는 것은 청자의 「イエス: X+ (だ)」라는 동의만을 구하는 것, 예를 들면 「今日は水曜日でしたか」이다. 따라서, 의문사가 있는 「今日は何曜日でしたか」등은 확인요구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泉原省二(2005)『日本語類義表現-使い分け辞典』研究社 p990

- 확인 요구의 「だろう」 -

- ◆인터넷만으로도 질문문의 기능이 있다.
- ◆「ほら」와 공기(共起)할 수 있다
- ◆청자의 시상이나 기억에 관한 확인을 한다.
- ◆청자영역에서 화자가 접근 하기 때문에 정보확정에서는 청자 의 승인이 필요하다.
- ◆문말(文末)에만 쓸 수 있다.
- ◆대화나 회화에서만 쓸 수 있다.
- ◆상승과 하강 인토네이션 모두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확인요구모달리티 「だろう」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추측 「だろう」의 경우는 청자의 인식이 불확실하면서 화자의 인식도 불확실한 반면, 확인요구의 「だろう」는 화자의 인식상태를 기준으로 화자의 인식이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 두 가지가 있으며, 이때 청자의 인식은 확실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화자 자신의 인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인요구는 청자에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기대하고 청자의 응답에 의존하여 그 정보를 확실하다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의 의존형이라고 본 논문의 연구구성에서 언급하였다. 아래의 예문(19)와 (20)는 대화현장에서 들은 정보에 대하여 청자에게 확인하는 표현인데, 이때 화자에게는 정보가 없고 청자에게 그 지식을 의존하고 있는 청자 의존형이다.

(19) 芝 「警察に マークされてる? 」

中 「雨宮が? 冗談でしょう? 」

江 「俺だってそう 思いたいよ! 」

<ヒーロー>

(20) 末 「江上さんじゃなかったの! ? 」とっても嬉しそうな末次(笑)

「ははははは. . . と 崩れ落ちそうな自分を必死に立てなおし、ぱたぱたと

コーヒーを入れにいった雨宮に、嘘だらう?」とすがりつき。

<ヒーロー>

화자 자신의 인식이 확실한 상황에서의 확인요구는 청자의 인식을 유도하여 공유정보의 확립을 예측하는 청자 유도형도 청자의존형과 함께 앞서서 언급하였다. 예문 (21)~(23)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청자에게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 (21)과 (22)번을 보면 「ほら」와 함께 쓰여서 화자의 정보를 더 강조하고 있다.

(21) ミナミ: 私と結婚して下さい。

瀬 名: 勘弁して下さいよ。すみませんあのう。はっきり言いますが、
あなた今パニックで取り亂してると思うんですよ。俺“花むこ”の代わりな
んかできないし、ほら、関係者の人だってたくさん来てるでしょう。

ミナミ: そうか。 <ロングバケーション>

(22) 晶子: こないだ結婚した子は?

樹 : うん?

晶子: 結婚して名前かわったでしょう。ほら、そうでしょう?

樹 : あれは遠藤さん。ティッシュ。 <ラブレター>

(23) 瀬 名: じゃ、僕は淳子ちゃんにとって面倒くさいんですかね?

ミナミ: かかってくるよ来る来るだって “ずっと先輩のそばにいます” っ
て言ったんでしょ? いるよ きっと

瀬 名: そうですかね?

ミナミ: 映画館で感動するところ違うからってそれで気にしてるの?

<ロングバケーション>

여기에서 화자가 청자의 정보를 유도한다라는 부분에서는 「じゃないか」와 공기(共起)하지 않을까 한다.

청자의존형의「だろ」는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청자의 동의에 자신이 없다는 화자의 기분이 나타나 있다. 宮崎(2005)은 청자 의존형에서는 보통의 질문문처럼 청자의 응답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여 화자의 관심을 나타내고, 청자 유도형에서는 청자의 응답보다는 청자가 그러한 인식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4) 「せっかく作ってくれたのに」

「なんかあまっちゃったら申し訳ないでしょ」

「あ、大丈夫です」

「大丈夫?」

〈四月の物語〉

(25) しゅうじ: 顔色さ、あんまりに酷かったからさ...

きょうこ: ごめん。

しゅうじ: 乗った事あるなんてうそだろ?

きょうこ: うそじゃないよ。中学校の頃乗ったもん。もういいよ。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26) きょうこ: そういう感じでもないんだよな。なんか心の中、何もバリヤ
ないって感じ? 心のバリヤフレリー

まさお: ふん... そいつ男だろ?

きょうこ: どうして?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27) 服部: 結構いい運動でしょ。

杉山: ええ、まいりました。

服部: お互い、がんばりましょう。

〈シャル・ウィ・ダンス〉

(28) 漆 「俺まだなんか食べてますう?」

末 「最後にデザート食べてるでしょ? 焼きたて林檎 パイ!」 〈ヒーロー〉

(29) 「犯罪は 犯罪 でしょ?」

〈ヒーロー〉

(30) 「これ、効くよ。腹筋 マシン、知ってる?」

「久利生さん!」

「固いでしょ、この人」雨宮を指差しつつ、真剣な顔でさらに聞きます。

「マーメイドスリムって知ってる?」 <ヒーロー>

예문(24)~(26)는 청자의존형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나 있고, (27)~(30)은 청자 유도형으로 청자에게 Yes-No의 답보다는 청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 「ね」

「ね」가 단독으로 쓰일 때 어용론(語用論)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¹¹

- ◆호소(呼び掛け) - 화자가 하려고 하는 무언가의 언어행위에 앞서서, 청자의 주의를 끄는 것이다.

(31) 芝 「ナンパとはね」

遠 「ついていっちゃうんだ」

中 「雨宮がね」

末 「元気だして」

<ヒーロー>

(32) 「僕はね、輸入家具の会社を経営してましてね、最近は不況で、

こういった高級品はなかなか売れないんだよね。」

「ご家庭の事情はお察ししますが、ちゃんと学校に来るように、桜さんにお伝

え下さい。」と千秋。

<ノダメカンタービレ>

- ◆이해확인 - 긴 보고나 잡지의 설명 도중, 거기까지의 이해를 청자

¹¹青木裕美 (2005) 「単独で使用される「ね」のプロソディー」 『言語学と日本語教育IV』くろしお出版 pp272~273

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33) 先生: この公式は中間に出すからね... よく覚えておきなさい!

クラスメイト: エエ~~~~~ッ!!!!

<耳をすませば>

- ◆정보공유의 확인 - 화자가 무언가의 정보나 의견을 청자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자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34) <「MAIKO AMAMIYA 1976 年10月15日生まれ、ね、誕生日もちゃんと

彫ってある。はい、ご褒美」「きゃ----!! それは、雨宮が買ったペンダントです---!!!」

雨宮「自分が探しているときに見つけていたんですね!!!」

<「え? おまえそれを探していたの? なんだ 俺はてっきり, 證據品を探してたのかと思った (棒読み)」 <ヒーロー>

(35) 「いや、いくら派遣でも本当に忙しいときは 残業ぐらいしてもらわないとね。里中主任。」

「・・・そうですね。」

<派遣の品格>

- ◆재확인(念押し) - 화자와 청자가 회화상에서 한번 동의한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36) 「すみませんが、東海林さんに、電話してみてくださいませんか?」

「何で私が!」

「それは・・・」

「そうですよ! 春子先輩なら!」と美雪。

「そうだよ。俺が結婚したいのはお前だ、って言ってたしね。」

とリューク。

「やっぱり・・・ 大前さんに、プロポーズ、したんですね。」

と賢介。

「え！？森ちゃんじゃなくて！？そっか、そうだったんだ。」

ほっとする浅野。

「春子先輩、恥ずかしがっている場合じゃないですよ。電話してみてください。」

〈派遣の品格〉

◆동의 - 지금들은 정보, 의견에 대하여 화자가 동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37) 「名古屋の子会社かー。大丈夫かな、東海林君。」子が心配する。

「さっきメール来たけど、元気そうだったよ。」

「そう！？よかった！でも、急だったから送別会も出来なかったわね。」

「そうだね・・・」

「でも、東海林君のことだから、きっと何か手柄を上げて、本社に戻ってくるわよ！」

「うん。」

〈派遣の品格〉

(38) 「あの、私の方から、条件を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一ツ木が遠慮しがちに割ってはいる。

「条件？」

『契約期間は本日より三ヶ月。勤務時間は月曜から金曜までの九時から。正午より一時間の昼休みを挟んで、午後六時までとする。 契約期間の延長は一切いたしません。 担当セクション以外の仕事はいたしません。休日出勤、残業はいたしません。大前春子』

春子の条件を読み上げる一ツ木。

「ちょ、ちょっと待って。いたしません、いたしませんって・・・。あんた何でさっきから一言も喋らないの？」

東海林嘔み付くが、春子は無視する一方。

「いや、いくら派遣でも本当に忙しいときは残業ぐらいしてもらわないとね。

里中主任。」

「・・・そうですね。」

〈派遣の品格〉

중래의 학자들간의 「ね」의 의미를 보면 ‘청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관계’에 관한 설이 중심이 되고 있다. 「ね」는 ‘화자와 청자의 정보가 일치하는 화자의 상정(想定)’과 ‘청자에게 정보가 있다고 하는 청자의 정(想定)’을 나타내는 설¹²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ね」에 관하여 어용론적 의미에서 재확인(念押し)과 정보공유의 확인을 바탕으로 확인요구 모달리티를 정보적인 관점에서 진술해 나가도록 하겠다.

평서문에 있어서 「ね」는 화자는 청자에게 정보가 존재한다고 보고 청자가 당연히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보다 청자가 그 정보에 가까울 경우와 청자의 인식 또는 청자에게 화자 자신의 인식을 확인할 때에 사용되는 종조사이다.

청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은 항상 화자의 인식보다도 청자 쪽이 확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에 관한 것도 청자의 인식에 재확인하는 용법으로 「ね」를 사용한다.

예문(36)’에서 보면 화자는 청자에게 회화상에서 했던 말을 재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36)’ 「すみませんが、東海林さんに、電話してみてくださいませんか？」

「何で私が！」

「それは・・・」

「そうですね！春子先輩なら！」と美雪。

¹² 宮崎(2005) 『現代日本語の疑問表現』 p135 재인용

「そうだよ。俺が結婚したいのはお前だ、って言ってたしね。」
とリューク。

「やっぱり・・・ 大前さんに、プロポーズ、したんですね。」
と賢介。

「え!? 森ちゃんじゃなくて!? そっか、そうだったんだ。」
ほっとする浅野。

「春子先輩、恥ずかしがっている場合じゃないですよ。 電話してみてください。」
〈派遣の品格〉

「ね」의 재확인이라는 것은 청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ね」 대신 「か」를 사용해도 ‘묻다’ 라는 점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질문문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의문형의 「か」는 화자의 인식 정도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ね」의 확인요구와 다르다.

「ね」는 화자도 그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인식자인 청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ね」는 화자의 인식에 있어서 ‘나도 어느 정도는 너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라고 하는 느낌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ね」를 붙인 표현 수단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자의 기분은 거기까지이지만, 여기에 인тона이션이 추가되면서 화자의 감정이 더해진다.

여기서 청자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점에서 「か」보다는 배려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의 내면에는 ‘청자는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과 그 예감이 확신해지면 청자에게 ‘너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청자에게 인식을 강요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

「ね」는 화자의 인식방법을 청자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인식을 해도 좋은 것인가라고 확인을 구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자의 의지에 관한 확인을 화자의 인식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ね」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기인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사태에 대해서도 탐색과 제안이라는 뉘앙스를 수반하지 않고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여 ‘재확인(念押し)’을 사용한다. 단, 청자의 인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다.

(39)エ 「あらやっぱり バレてた」

雨 「それで口止めしようとしたんですね？」

エ 「私は 知ってる人を紹介しただけそれって法に觸れてますか検事さん？」

く 「え? いやべつに? 辯護士さんが職を斡旋しちゃいけないって法はないからね」 <ヒーロー>

(40) 「コンクールっちゃーピアノの大会ね。 はー。 恵が大会！」

「でも失敗したばってんね。」

「そんで? そんで大会は、楽しかったとね?」

「・・・うん!」 <ノダメカンタービレ>

2. 정보적 관계

가. 청자 의존형

(1) 정보적 공기(共起)

청자 의존형에는 「だろう」와 「ね」가 속하고 이것들의 정보적 공기와 호환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선행연구를 보게 되면 「だろう」는 화자와 청자가 처음부터 반드시 동일한 의견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쓰이며 「ね」는 화자와 청자가 처음부터 동일한 의견이라고 예상한 경우에 쓰인다. 「ね」가 정보적인 배려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森山(1989)는 「だろう」의 정보의 배려성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고 보았다. 이것은 청자에게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청자에게 정보가 없다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宮崎(2000)¹³는 「ね」의 경우 화자의 인식이 불확실한 것으로 청자의 인식이 확실하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반대로 화자만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

둘 다 정보의 확정에 있어서는 청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ね」와 「だろう」는 의미적으로는 공기(共起)하지 않지만, 청자에게 정보가 존재할 경우 어느 쪽도 청자의 정보배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1) 「大前さん、こういう話題、嫌いみたいですね。」と近。

「30過ぎた女はみんな嫌いでしょう。」と小笠原。

〈派遣の品格〉

¹³ p106

(42) ドーラ: 時計回りに 回しな。フックが かかったら上のハンドルを回せば翼が開く。開いたらワイヤーを張りな。操縦は体でおぼえるんだ! シータ、そこにいるね?

シータ: はい!

ドーラ: お前は戻っておいで。

シータ: なぜ?

ドーラ: なぜって? お前は 女の子だよ!

<天空の城ラピュタ>

(43) 「原田邦夫という男を知っていますね?」

「会った。何かした?」

「どうして知っている」

<踊る大捜査線>

(44) その日の夜も、二人はバーで会っていた。

「ねー、千秋。今日も朝まで付き合ってくれるでしょう?」

「勘弁してくれ。愚痴なら彼氏に聞いてもらえよ。」

「彼氏?」

「いるだろ。指揮科の、ハムみたいなやつ。」

「早川君! ? いやだ、もう。彼氏じゃないわよ。それに彼今頃ドイツよ。」

<ノダメカンタービレ>

(45) しゅうじ : ね、やっぱこーゆーさ、観覧車の中ってさ、こー スペースを利用してればね、色んな事してんだよね。

きょうこ : マジ?

しゅうじ: するでしょ? だって公室だもん。うわ~ すっげー

きょうこ: え? マジ? マジ? マジ?

しゅうじ: うそ。変態... やっぱ暗くなってからじゃないとね? 駄目でしょ?

きょうこ: てゆーかさ、するって.. キスでしょ?

しゅうじ: キスでしょ? 普通.. 何考えてんの? 何だと思ってるの?

きょうこ : 別に..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41)~(45)의 예문에서는 확인요구의 「ね」를 써서 화자의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다. (41)을 보면 ‘이런 화제거리는 싫어하는 거 같군요’라고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다. (42)에서는 청자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은 화자가 청자가 그곳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상황이고, (43)에서는 原田邦夫란 남자를 청자에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구하는 표현이다. (45)에서는 「だろ」를 사용하여 청자의 정보적인 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정보가 확실한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고 있다. (44)에서 보면 청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할거지? 라고 확인을 구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는 확인요구모달리티에서 정보 의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46)マルクル：其許は何者じゃ。

ソフィー：カルシファーが入れたんだよ。

カルシファー：俺じゃないよ、荒地から勝手に入ってきたんだよ。

マルクル：荒地から？うーむ……まさか魔女じゃないでしょうね。

カルシファー：魔女なら入れるもんか。 <ハウルの動く城>

(47)「ところで、大前春子さんは来てくれるんだろうね？」と桐島部長。

「はい!彼女は抑えました。明日、面談に伺わせます。」

「そう。大前さんが来てくれるんなら、もう一人は、この人でいいよ。」

<派遣の品格>

(46)와(47)의 경우에는 이미 「ね」 앞에 「だろ」가 쓰여져 있는 「だろ
うね」라는 확인요구 표현으로 청자 의존형에 속한다. 하지만 「だろ
うね」 경우에는 화자의 내면에 불신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화자는 확신도가 떨어지고 있다.

(46)에서는 설마 마녀는 아니겠지 라고 청자에게 확인을 하고 있지만,

화자는 한편으로는 정말 마녀일까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47)에서는 大前さんは 와 주겠지 라고 청자에게 물으면서 한편으로는 안 올 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현은 청자 의존형의 관계는 아니지만 인식적인 면에서 「ね」와 공기(共起)한다고 본다. 「ね」의 의미적인 정의에서 보면 ‘청자는 당연히 그러한 인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이 확실해 저서 ‘너는 이러한 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상 할 꺼야’ 라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의미적인 관계로 본다면 「ね」와 「じゃないか」는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48) 「俺たちも捜査權って持ってんじゃない。」

「それはもっと 大きな、汚職のような事件の時にやるもんじゃないですか?」

「ふ-ん. . . . 事件に大きい小さいってあるんだ。」

<ヒーロー>

(49) 「署長がやったんですね?」

「知りませんよ。」

「やったんですね?」

「ひどい!」

<踊る大捜査線>

(50) ソフィー：ハウル?

怪鳥：……ううあああ……あああ……

ソフィー：ハウル、ハウルね? 苦しいの? 怪我をしてるのね?

怪鳥：……来るな……

ソフィー：あたし、あなたを助けたい。あなたにかけられた呪いを解きたいの。

怪鳥：自分の呪いも解けないおまえにか?

ソフィー：だってあたし、あなたを愛してるの!

怪鳥：もう遅い……!

<ハウルの動く城>

위의 예문은 각각 청자가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하지만 의미적으로나 정보적인 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2) 호환성

정보적 공기에서 쓰인 예문을 바탕으로 「だろ」와 「ね」의 호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 (41)' 「大前さん、こういう話題、嫌いみたいです {ね/*だろ}。」
「30過ぎた女はみんな嫌いでしょう。」 <派遣の品格>
- (44)' その日の夜も、二人はバーで会っていた。
「ねー、千秋。今日も朝まで付き合ってくれる {でしょう/ね} ?」
「勘弁してくれ。愚痴なら彼氏に聞いてもらえよ。」
「彼氏?」
「いるだろ。指揮科の、ハムみたいなやつ。」
「早川君! ?いやだ、もう。彼氏じゃないわよ。それに彼今頃ドイツよ。」 <ノダメカンタービレ>
- (45)' しゅうじ:ね、やっぱこーゆーさ、観覧車の中ってさ、コーススペースを利用してればね、色んな事してんだよね。
きょうこ:マジ?
しゅうじ:するでしょ? だって公室だもん。うわ~ すっげー
きょうこ:え? マジ? マジ? マジ?
しゅうじ:うそ。変態... やっぱ暗くなってからじゃないとね? 駄目でしょ?
きょうこ:てゆーかさ、するって.. キス {でしょ/ね} ?
しゅうじ:キスでしょ? 普通.. 何考えてんの? 何だと 思ってるの?
きょうこ:別に..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41)' 의 경우에는 鄭(1992)가 이야기한 3인칭 제한으로 인하여 「ね」

대신「だろー」를 쓰면 어색하게 된다. 주어가 1인칭의 경우에는「だろー」를 쓰는 것은 가능 하지만, 大前さん이라고 하는 3인칭인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44)' 와 (45) 은 각각「だろー」와「ね」 바꿔 써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다. 화자의 인식보다는 청자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꿔 쓸 수 있다.

나. 청자 유도형

(1) 정보적 공기(共起)

화자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청자의 유도를 이끌어 내는「だろー」와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じゃないか」의 청자 유도형에서 정보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51) 「のだめ、ちょっと待て。これ、明日のチケット。」
「あ、それならもう、のだめも買いましたよ、ほら。」
「やっぱり。一番安い席じゃないか。」
「これは一番いい席。」 <ノダメカンタービレ>
- (52) 「ほら。今日からちゃんとコンチェルトの勉強してもらおうぞ。」
「コンチェルトはもうやりましたよ。」
「え？」
「先輩一緒にやってくれたじゃないですか。」
「やったって。お前オーケストラとやりたいって。」
<ノダメカンタービレ>
- (53) 結っ構ですっ! と 厳しく拒否されたけどね. . . .
「末次さん。中村検事のこと、お好きでしょ」
「えっ」
「ほらほら。顔に出た」 <ヒーロー>

(54) ミナミ:本当は知りたいでしょう。

瀬 名:本当はしゃべりたいでしょう。

ミナミ:ばれたか私もビール飲もうマザの鮎の甘露煮

瀬 名:男できたの?

<ロングバケーション>

(51)은 역시 제일싼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화자가 청자에게 공감을 유도하고 있고, (52)에서는 선배가 함께 해주지 않았냐고 하는 청자에게 화자의 인식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장면이다. 예문(54)에서는 中村검사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청자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음은 청자 유도형에서 「だろう」와 「じゃないか」의 차이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だろう」를 청자 유도형으로 본다면 「じゃないか」가 청자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비슷한 것 같아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仁田(1989)¹⁴는 각각의 정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종래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하였다. 정보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간의 정보 소속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だろう」의 경우 화자가 정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청자의 정보에 의지하고, 화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청자를 유도하여 화자의 정보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だろう」를 사용하면 인식이 청자영역의 정보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청자영역에 존재하는 정보와의 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55) ミナミ:でも、やるって決めたんでしょう?決めたからには...

¹⁴ 확인요구 모달리티에서만 「だろう」와 「じゃないか」가 바꿔 사용할 수 없지만, 모달리티 가운데 ‘疑似모달리티’에서는 화자 이외의 판단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성격으로 비대칭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だろう」도 「じゃないか」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ここに看板を立てても、誰も見ないかもしれない。」 {だろう/じゃないか} pp26~28

新人:うるさいんだよ。おばさん...

<ロングバケーション>

(56)おやじ: さあモリモリ食べてビシバシ こう!

おやじ: いい音だ。このエンジンは当たりだぜ。

おやじ: どうだ。よく回るだろう。

ポルコ: いいかげんにしねえと、小屋が飛んじまうぞ。

<紅の豚>

(57)カチス: おめえ そのカオ 待てよ オイツ!

カチス: カオ見世ろって!!

ポルコ: お前の艇はそっちだろう。

カチス: ちょっとだけ!

<紅の豚>

(58)きょうこ: 吉野屋、あ、違いの、これ。これ、忘れたでしょ? 圖

書館に。これ届けに来たの。あ、それはいいの。返して

しゅうじ: でも、これ持ってきてくれたんだろ。

きょうこ: まあ、

しゅうじ: これ、食べようよ。牛ドン。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55)~(58)는 청자의 정보를 조합하려고 하고 있다. (55)에서 보면 한다고 결정하지 않았니 라며 청자의 정보 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じゃないか」를 사용하면 화자의 판단을 청자에게 제시하고, 청자의 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로 제시하는 정보와의 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59) 「僕は、まだあなたのことを、何も知らないです。あなたが心を開かないのは、もうこれ以上、傷つきたくないからじゃないんですか?」

「・・・それが何か。」

「あなたがいろいろな職場で、どんなに辛い思いをしてきたのか、僕にはわからない。」

<派遣の品格>

(60) 「公平の渡した紙袋には、例の防犯ブザーをしこんだ、オトリ下着が
セットされていて、それを盗んだら、ものすごい音がするようになっていて、
それで犯人を捕まえ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じゃないですか! あら--! 」
〈ヒーロー〉

森山(1989)는 「だろう」와 「じゃないか」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だろう」는 화자와 청자가 처음부터 동일한 의견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じゃないか」는 화자가 청자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의미 위에 화자 쪽이 정확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형식의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뉘앙스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2) 호환성

청자 유도형에서 「じゃないか」와 「だろう」의 호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じゃないか」경우 외관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에는 청자의 인식에 대하여 확인이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자신의 외관에 관한 확인을 하는 것에는 「じゃないか」를 사용할 수 없다.

(61) 千 昭 : 眞琴、俺と付き合えば? 功介に彼女ができたらって話し。

俺そんなに顔も悪くないだろ?

紺野眞琴 : ウウッウッ ウッ... うわっ! ああつ 〈時をかける少女〉

(62) ミナミ : 桃ちゃん! 私ってガサツ?私って... ”あんた、女だろ?”

って感じ?足あとだらけの、足あとだらけの。

〈ロングバケーション〉

(61)' 千 昭 : 眞琴、俺と付き合えば? 功介に彼女ができたらって話し。

俺そんなに顔も悪くないじゃないか?

紺野眞琴：ウウッウッ ウッ... うわっ！ああつ <時をかける少女>

(62)' ミナミ：桃ちゃん！私ってガサツ？私って....”あんた、女じゃないか？”って感じ？足あとだらけの、足あとだらけの。

<ロングバケーション>

(61)' , (62)' 에서는 「だろう」 대신 「じゃないか」 를 쓸 경우 화자의 외관에 관한 내용이므로 바꿔 쓸 수가 없다.

(63) さとる：後の二割は... しゅうじが君、作るの、もう一回見たかったんだ。ほら、一回作った事あったでしょう? 雑誌の記事になった時... あの時、すげーよかったからもう一回見たいなと思って...

きょうこ：本当に?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63)' さとる：後の二割は... しゅうじが君、作るの、もう一回見たかったんだ。ほら、一回作った事あったじゃないか? 雑誌の記事になった時... あの時、すげーよかったからもう一回見たいなと思って...

きょうこ：本当に?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63)는 화자에게 정보가 있고 그것을 청자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문 에서는 「ほら」라고 하는 감탄사로 인하여 청자의 정보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安達(1991)¹⁵에 따르면 「ほら」와 「だろう」가 같이 쓰일 경우, 청자에게 정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じゃないか」와 바꿔 쓸 수 있다고 한다. 鄭相哲(1994)¹⁶은 「ほら」와 함께 쓰일 경우 확인요구에서는 「だろう」와 「じゃないか」는 바꿔 쓸 수 없지만 인식 요구에서는 가능하다. 즉, 청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듯한 용법이 없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¹⁵ p48

¹⁶ p29

아래의 예문은 「ね」의 앞에 「よ」를 붙인 형태인 「よね」와 「じゃないか」의 호환성이다. 예문을 먼저 보고 설명하도록 한다.

(64) 古「検事さんなら、信じてくれるよね?」

りゅたん「そりゃもう、信じます! ってところで、古田は近くを
通るパトカーにびびっちゃって、電話を切っちゃいます。」
これはいかん! と飛び出すくりゅたん!

<ヒーロー>

(64)' 古「検事さんなら、信じ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

りゅたん「そりゃもう、信じます! ってところで、古田は近くを
通るパトカーにびびっちゃって、電話を切っちゃいま
す。」これはいかん! と飛び出すくりゅたん!

<ヒーロー>

(65) 「いらっしやいませ」

「あの、高校、北高じゃないですよね?」

「はい、そうです」

「そうだよね。俺のイツコ下の憶えてますか?」

<四月の物語>

(65)' 「いらっしやいませ」

「あの、高校、北高じゃ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はい、そうです」

「そうだよね。俺のイツコ下の憶えてますか?」

<四月の物語>

「よね」와 「じゃないか」를 바꿔 써도 「じゃないか」가 가지고 있는 화자의 강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크게 뉘앙스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ね」의 앞에 「よ」를 붙인 형태인 「よね」는 蓮沼(2006)에 따르면 「よね」도 확인용법의 한 형태로써 「ね」와 「よ」의 각각의 기능이 복합된 것

이 아니라 「ね」 「よ」의 각각이 가진 기능이 첨가된 것이다. 「よね」의 용법은 기억의 검정과 청자와의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제 삼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よ」가 덧붙여진 「よね」는 「ね」보다 「よ」의 의미가 강하고, 의미적으로는 사람은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말, 이론, 상상력 등에 의해 개념적·가상적으로 쌓여진 지식에 대한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ね」의 정보적인 부분은 청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화자의 정보에 대한 확신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ね」앞에 「よ」를 넣어 같이 쓰게 되면 정보는 화자가 가지고 있으며 그 정보에 대한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확실성은 높으며 청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じゃないか」는 ‘청자는 당연히 그러한 인식을 할 것이다.’라고 화자는 생각하지만, 「よね」의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뉘앙스적인 차이¹⁷가 있어서 화자는 청자에게 ‘당연히’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지, ‘그러한 인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보면 「よね」를 「じゃないか」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じゃないか」앞에 「ん」이 첨가되어서 「じゃないか」의 확인요구의 강도가 낮아진다.

(66) ミナミ: わるかったね。足あとだらけで、汚くて、誰も滑りたくない竹

の小山のゲレンデみたいなもんだよね。なによ。自分こそかっこつけて、好き?ね? 好き {でしょう/なのね/*じゃないか}? だったら、ホテルでもなんでも、行きゃいいじゃん。

<ロングバケーション>

¹⁷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그것을 현장으로 불러 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협력하여 발화의 장으로 공통이해를 형성한다는 뉘앙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蓮沼昭子 (2006) 「対話における確認行為 - 「だろう」「じゃないか」「よね」の確認用法-」 『国語学各論・日本語変異論特論Ⅱ』 p403

위의 예문에서 보면 「だろう」 「ね」 「じゃないか」는 각각 바꿔 쓸 수 있지만, 이 때는 「だろう」와 「ね」는 호환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じゃないか」를 쓰면 뉘앙스적인 차이가 생긴다. 외관에 대한 청자의 의견을 물어볼 경우에 쓰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뉘앙스적으로 어색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だろう」와 「ね」 「じゃないか」 정보적인 관계에 관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1 「だろう」 「ね」 「じゃないか」의 청자의 정보적 인식관계>

왼쪽의 「だろう」와 「ね」는 화자의 정보적 인식이 청자에 비교해서 낮고 확증에 있어서 청자의 정보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의 「だろう」와 「じゃないか」는 화자의 정보적 확신이 높고, 그 정보에 대한 청자의 유도를 얻어내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다. 정보의 확신성

(1) 「じゃないか」와 「ね」

(67) 「分かった。- え?」

「分かったような気がした。何も考えずに聞いたら。」

「これは、ただのガキね?」

「そうだ。」

<踊る大捜査線>

(68) 「青島くんが重要参考人の当たりを見つけました。青島? 確實なのかね?

「もうミスは許されませんよ、室井さん。」

<踊る大捜査線>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유도하기 보다는 청자에게 그 답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69) 「もう、外人の被疑者増えたから通譯が欲しい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で

すか。この中で英語しゃべれるの雪乃さんだけだもんね」

<踊る大捜査線>

(69)의 예문을 보면 정보적인 면에서는 화자가 우위에 있어서 화자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음은 화자의 정보적 확신성의 표시한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자의 정보적 확신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ね」 < 「じゃないか」

앞에서 잠시 언급한 「よね」와 「ね」「じゃないか」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ね」 < 「よね」 ≤ 「じゃないか」

‘≤’로 표시한 것은 「よね」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청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다고 믿고 청자에게 화자의 정보공감을 유도하여 화자의 정보의 확신을 더한다는 면에서 「じゃないか」와 「よね」가 정보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청자에 관한 뉘앙스적 차이가 있어서 「じゃないか」는 청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よね」는 청자가 ‘당연히’가 아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じゃないか」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

(2) 「だろう」와 「ね」

「だろう」의 경우에는 화자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자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화자의 정보가 확실하면 청자의 정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앞서서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だろう」가 가진 정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だろう」는 「ね」와 「じゃないか」와 각각 공기(共起)한다고 볼 수 있다.

「だろう」가 청자 의존형일 경우, 「ね」가 가지는 정보적 의미와 일치하지만, 「ね」의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보의 확신성 관계를 내릴 수 있다.

「だろう」 ≤ 「ね」

둘 다 청자에게 승인을 필요로 하고 정보적인 배려라는 의미에서 ‘=’라고 할 수 있지만, 「だろう」는 화자와 청자가 처음부터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화자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

지만, 「ね」의 경우는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고 정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ね」 쪽이 확신도가 크다고 본다.

(19)' 芝 「警察に マークされてる? 」

中 「雨宮が? 冗談でしょう? 」

江 「俺だってそう 思いたいよ!

<ヒーロー>

(20)' しゅうじ: 顔色さ、あんまりに酷かったからさ...

きょうこ: ごめん。

しゅうじ: 乗った事あるなんてうそだろ?

きょうこ: うそじゃないよ。中学校の頃乗ったもん。もういいよ。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

(70) 樹 : あった、なんだこれさいて~ "そのいわくつきの答案を見つけ

たので送ります。裏の落書きはあいつの直筆です。"

博子: "拜啓藤井樹様。直筆入りの答案用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切にします。ところで彼はどんな女の子が好きだったんでしょう。例えば初戀の相手なんか心当たりはありませんか。"

<ラブレター>

(3) 「じゃないか」 와 「だろう」

청자 유도형에서는 화자의 인식이 높고 청자에게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면에서는 「じゃないか」 와 「だろう」 가 같은 정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성을 나타낼 수 있다.

(55)' ミナミ: でも、やるって決めたん{でしょう/じゃないか}? 決めたからに

は...

新人: うるさいんだよ。おばさん...

<ロングバケーション>

(58)' きょうこ: 吉野屋、あ、違うの、これ。これ、忘れたでしょ? 圖

書館に。これ届けに来たの。あ、それはいいの。返して

しゅうじ：でも、これ持ってきてくれたん{だろ/じゃないか}。

きょうこ：まあ、

しゅうじ：これ、食べようよ。牛ドン。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じゃないか」 = 「だろう」

청자 의존형에서 정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꿔 써도 의미상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보의 확신성에는 동일하다.

하지만 「じゃないか」는 화자 자신의 정보를 확신하면서 그것을 청자의 정보와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だろう」는 지식의 추론에 의해 화자의 지식을 공감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じゃないか」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확신성의 결론을 지을 수 있다.

「だろう」 ≤ 「じゃないか」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じゃないか」「だろう」「ね」가 가지는 의미와 정보적인 관계, 접속 및 인칭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정보적인 공통점은 무엇이고 「じゃないか」「だろう」「ね」가 호환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또한, 「じゃないか」「だろう」「ね」가 가지는 정보적인 관계를 분석 하면서 이들이 청자와 화자간의 정보적 의존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じゃないか」는 화자의 정보에 대한 확신이 크고, 그 정보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옳다고 유도하는 확인요구형태이다 「だろう」는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반면, 화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청자에게 정보를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다. 「ね」의 경우에는 화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청자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뉘앙스를 가진다. 청자의 대답에 의해서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정보적인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だろう」와 「じゃないか」는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 ◆ 「だろう」와 「ね」는 정보배려라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ね」는 처음부터 화자와 청자의 정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だろう」는 처음부터 화자와 청자의 정보가 동일할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한다.
- ◆ 「ね」는 정보적으로는 청자에게 신뢰하고 있고 「じゃないか」는 화자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 ◆ 청자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ね」

「じゃないか」 일치하지만, 「ね」는 화자의 판단에는 자신이 없고 청자의 판단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じゃないか」는 화자의 판단이 확실한 것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다음은 「ね」「だろう」「じゃないか」의 정보적인 관계와 확신성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자 유도형	청자 의존형	화자의 확신
だろう	○	○	○
ではないか	○	×	○
ね	×	○	△

<표2> 청자와 화자간의 정보적 관계

그리고 청자의 정보적 의존 성향이 가장 강한 것을 정의내려 본다면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가 있겠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청자의 정보적 의존성향이 강하다.

$$\text{「じゃないか」} < \text{「だろう」} \leq \text{「ね」}$$

이때의 「だろう」는 화자에게 정보가 없고 청자의 정보에 의지하는 청자 의존형이다.

다음은 「だろう」가 청자 유도형일 때 화자의 정보 확신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だろう」 < 「じゃないか」

「だろう」보다「じゃないか」가 정보 확신성이 높은 것은, 「だろう」는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화자와 공유하고 있지만, 「じゃないか」는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고 그 정보에 대하여 청자의 정보를 유도하여 자신의 정보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의 확신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ね」는 청자의 정보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共起)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だろう」가 청자의존형일 때 화자의 정보 확신성에 대한 것이다.

「だろう」 ≤ 「ね」 < 「じゃないか」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배려라는 측면에서는 「だろう」와 「ね」가 같다고 보지만 「ね」의 경우에는 화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확인요구표현의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확인요구표현에는 「じゃないか」 「だろう」 「ね」 표현에서 파생되어 사용되는 확인요구 형태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형식의 확인요구형태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인토네이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앞으로 확인요구모달리티가 가지는 또 다른 표현들이 실제 회화상에서 취하고 있는 인토네이션과 확인요구모달리티의 정보적인 구조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가고 싶다.

참고문헌

- 安達太郎 (1991) 「いわゆる確認要求の疑問表現について」 『日本学報』
10 大阪大学文学部日本学研究室
- 青木裕美 (2005) 「単独で使用される「ね」のプロソディー」 『言語学と日本語教育IV』 くろしお出版
- 泉原省二 (2005) 『日本語類義表現—使い分け辞典』 研究社
- 御園生保子 (2000) 「文末に現れるジャンイの用法と韻律の分析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日本語意味と文法の風景—国広哲弥教授古稀記念論文集』 ひつじ研究叢書
- 金水 敏 (1992) 「談話管理理論からみた「だろウ」」 『神戸大学文学部紀要』 19 神戸大学文学部
- 工藤浩・新田義雄・森山卓郎 (2000) 『モダリティ』 岩波書店刊
- 鄭相哲 (1992) 「いわゆる確認要求の「ネ」と「ダロウ」」 『日本学報』 11
大阪大学文学部日本学研究室
- (1994) 「所謂確認要求のジャンイカとダロウ」 『現代日本語研究』 1 現代日本語学講座
- (1996) 「伝達のモダリティを巡って」 『西京大学校論文集』 24 西京大学校
- 陳常好 (1987) 「終助詞-話し手と聞き手の認識のキャップをうめるための文接辞-」 『日本語学』 6-10 明治書院
- 仁田義雄・益岡隆志 (1989)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 (1994) 「第四章—疑問表現の諸相」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 蓮沼昭子 (2006) 「対話における確認行為 — 「だろウ」「じゃないか」「よね」の確認用法—」 『日本語文法の研究—日本語の疑問文とその周辺—

』国語学各論・日本語変異論特論Ⅱ

- 益岡隆志・田窪行則（1989）『基礎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1991）『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 南不二男（1985）「2. 質問文の構造」『朝倉日本語新講座4 文法と意味Ⅱ』朝倉書店
- 三宅知宏（1994）「否定疑問文による確認要求表現について」『現代日本語研』1 現代日本語学講座
- （1996）「日本語の確認要求的表現の諸相」『日本語教育』89 日本語教育学会
- 宮崎和人（1996）「確認要求表現と談話構造—「～ダロウ」と「～ジャンイカ」の比較—」『岡山大学文学部紀要』25 岡山大学文学部
- （2000）「確認要求表現の体系性」『日本語教育』106 日本語教育学会
- （2002）「第6章 確認要求」『新日本語文法選書4 モダリティ』くろしお出版
- （2005）『現代日本語の疑問表現』ひつじ書房
- 宮崎和人・安達太郎・野田波春美（2002）『新日本語文法選書4 モダリティ』くろしお出版
- 宮地 裕（1997）『日本語学要説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1』明治書院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4）『동아새국어사전』두산동아 제4판
- 岩波書店（1998）『広辞苑 第五版』岩波書店

<예문출처>

<시나리오>

MiyazakiHayao<<http://www.jcafe.pe.kr/miyazakihayao/hayao2.html#3>>
<http://cafe.daum.net/kitobo>

◆드라마

1. 永山耕三、鈴木雅之、臼井裕詞(1996) 『ロングバケーション』 (1回～11回) フジテレビ
2. 生野慈朗、土井裕泰(2000)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1回～11回) TBS
3. 鈴木雅之(2001) 『ヒーロー』 (1回～11回) フジテレビ
4. 南雲聖一(2007) 『派遣の品格』 (1回～11回) 日本テレビ
5. 武内英樹(2006) 『ノダメカンタービレ』 (1回～11回) フジテレビ

◆ 영화

1. 周防正行(1996) 『シャル・ウィ・ダンス』 Altamira Pictures Inc.
2. 岩井俊二(1995) 『ラブレター』 Fuji Television Network, Inc.
3. —————(1998) 『四月の物語』 Rockwell Eyes Inc.
4. 本広克行(1998) 『踊る大捜査線』 東宝
5. 行定 勲(2004) 『世界の中心で愛を叫ぶ』 東宝/TBS/博報堂DYメディアパートナーズ 小学館/S・D・P/MBS

◆ 애니메이션

1. 高畑 勲(1988) 『火垂るの墓』 スタジオジブリ
2. 望月智充(1993) 『海が聞こえる』 スタジオジブリ若手制作集団
3. 宮崎 駿(1986) 『天空の城ラピュタ』 東映
4. —————(1984) 『風の谷のナウシカ』 トップクラフト
5. —————(1988) 『となりのトトロ』 スタジオジブリ
6. —————(1991) 『おもひでぽろぽろ』 東宝
7. —————(1992) 『紅の豚』 東宝
8. —————(1995) 『耳をすませば』 スタジオジブリ
9. —————(1997) 『もののけ姫』 スタジオジブリ
10. —————(2001) 『千と千尋の神隠し』 東宝

11. —————(2004) 『ハウルの動く城』 東宝
12. 細田守(2006) 『時をかける少女』 角川ヘラルド映画

